

# 국제농업박람회, 3천만달러 수출협약 실계약 '총력'

내일까지 나주시 해외바이어 사후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특강·1대1 멘토링 등 지원  
주의사항·선적 서류 준비 등 밀착 지도도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해외바이어 사후 수출컨설팅’을 개최한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3일 "지난 10월 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 거둔 3천304만달러(약 463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4-5일 나주 웨스턴 호텔에서 수출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협약 이후 복잡한 통관 절차와 국가별 규제 등으로 실제 선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수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계약 이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상담회 당시 수출협약을 한 24개 수출기업 관계자 30여명과 무역 전문가, 관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10월 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 3천304만달러(약 463억원) 규모의 수출협약성고를 달성했다. 사진은 10월 진행된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모습. <전남도 제공>

앞서 박람회재단은 지난 10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17개 국가 50개 사 바이어와 국내 10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 상담회에선 총 639건의 상담이 이뤄진 결

과, 총 3천304만달러의 수출협약을 했다.

특히 전남 대표 농산물인 ‘새청무 쌀’이 277만 달러(약 40억원)의 협약을 이끌어내며 세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수산물식품 분야에서도 3천27만달러(약 423

역원)의 성과를 올렸다. 멕시코·케냐 등 신규 시장 바이어 발굴과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영국 바이어와의 거래 규모 확대 등 실질적 판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컨설팅은 한문철 전남식품수출협회장의 협약

/김재정 기자

## 전남도 12월 친환경농산물 '무안 배추'

식이섬유·칼슘 풍부 대표 국민 채소

홍갑표 농가 6.5ha 재배 年520t 생산

전남도가 1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무안 배추'를 선정했다.

배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K, 칼슘이 풍부해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항산화 기능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 국민 채소다. 특히 김장철에 수요가 집중하는 주요 계절 농산물로 꼽힌다.



무안 현경면에서 친환경 배추를 재배하는 홍  
갑표씨와 배우자 윤명숙씨는 1985년 고구마 농

사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친환경농업을 지켜온  
대표적 선도 농가다. 〈사진〉

1987~1988년 일본·대만 견학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우고 조생양파·고추·감자 3모작으로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했으나 가격 변동으로 수익 불안정이 지속되자 2017년 친환경 양배추로 작목을 전환했다.

2023~2024년 양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친환경 배추 재배 면적을 4.3ha까지 대폭 확대하며 돌과구를 마련했다. 올해는 총 6.5ha 면적에서 친환경 배추 약 520kg을 생산해 서울 친환경 학교급식에 판매,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양시원기자

## ‘새로운 전남농협인상’ 3명 선정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안양농협 오승자 상무·전남양곡지재단 백영철 단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2025 새로운 전남농협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남지역본부는 3일 “최근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협 조직 변화에 헌신해 온 농협인 3명을 선정해 행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처음 제정된 '새로운 전남농협인상'은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협인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잠신한 아이디어와 디지털 소통 역량 ▲농축협과의 협력도 ▲농업인 복지 증진 노력 ▲지역공동체 기여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전남 관내 중암회·농축협·계열사 등 범농협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 안양농협 오승자 상무, 전남양곡자재단 백영철 단장 등 3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은 신용사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넘어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별 공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과수·시설 농가의 착과 안정성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에는 15개 농협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양농협 오승자 상무는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22년 연속 보험 연도대상을 수상해 농협



최장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누적 시상금 6천만원을 지역 장학금 및 공동체 사업에 기부하며 개인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양곡사재단 백영철 단장은 ‘농심친심’ 운동을 디지털 홍보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농업의 공익 캠페인 확산에 앞장섰다. 직접 제작한 농심친심 원인과 통화연결음 콘텐츠는 전남농협이 전국 홍보 흐름을 주도하는 상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심 중심의 실천과 디지털 소통, 공동체 환원을 실현한 전남농협인을 발굴하게 돼 뜻깊다”며 “수상자들이 보여준 변화와 혁신이 전남농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최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 입증...농식품부 경연 5개 부문 수상

전남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 경연대회’에서 총 8개 부문 중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 조사료(풀 사료) 생산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올해 대화에는 전국 우수 경영체 6개소가 참여했다. 전남에서는 우수상 영암 꽃매영농조합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비롯해 특별상 영광 유평농장영농조합법인(농촌진흥청장상)·장흥 금곡영농조합법인(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상)·신안 시골아재영농조합법인(조지조사료학회장상)·나주 동산조식료영농조합법인(조사료협회상)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전국 조사료 재배 면적의 36%인 6만ha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조사료 주산지로서

매년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고품질 조사료 생산 역량을 증명했다. /양시원기자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